“봉사 넘어 서로를 알아가는 기회 되길”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멘토링프로그램 ‘10 프로젝트’ 캠프

지역 내 CEO·보호대상아동 멘토·멘티 연계·공감
목표 공유·대인관계 확장…“자립지지체계 강화”

“이런 기회를 통해 저처럼 꿈을 가진 아동들이 희망을 펼쳐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24일 오전 10시께 곡성군 오곡면 곡성심청한옥마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올해 처음으로 실시한 보호대상아동 자립지지체계 강화를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 중 하나인 ‘너와 나의 연결고리 10 프로젝트’ 캠프에 참가한 멘토·멘티 20여명과 관계자들이 서로 인사를 나누고 소식을 전했다.

이번 캠프는 지역 내 CEO인 멘토와 보호대상아동 멘티를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 대인관계 확장을 목적으로 개최됐다.

행사는 총 4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고 캠프에 참가한 이들은 테이프 놀이, 만나서 반가워, 촛불모임 등을 통해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장 내부에는 놀이 프로그램 소품을 비롯해 빵, 음료, 간식 등 다양한 먹거리가 준비됐고 한쪽에서는 멘토와 멘티가 모여 카드게임 및 손축구(?)를 즐기는데 한창이었다.

프로그램 시작 시간이 되자 인원들은 원형으로 준비된 의자에 앉아 각자 자신을 소개했다. 참가자들은 박수로 환영했고, 몇몇 멘티와 멘토는 아직 어색한지 멋쩍은 미소를 짓기도 했다.

이후 각 멘토와 멘티는 가위바위보를 하며 상대방의 얼굴에 테이프를 붙이는 테이프 놀이를 했다. 현장은 ‘가위바위보’ 소리로 가득찼고, 서로의 얼굴에 테이프를 붙이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다.

이어 ‘사람을 찾습니다’, ‘뻐꾸기 둥지 틀기’ 등 프로그램이 하나 둘 진행될수록 참가자들은 어색함을 잊은 듯 능숙하게 대화했다.

또 ‘만나서 반가워’ 프로그램에서는 각 멘토·멘티들이 33개의 질문을 하며 서로에 대해 알아갔다.

프로그램이 끝난 후 한 멘토와 멘티는 ‘일상생활에서 주고받기 어려운 대화를 나눈 시간이 됐다’, ‘멘토가 말하기 힘든 이야기를 솔직하게 해줘서 저를 믿는다는 느낌을 받았다’는 등 다양한 소감을 밝혔다.

김민주(19·여)양은 “설레는 마음으로 캠프에 참가했고, 이렇게 다같이 웃으며 좋은 시간을 보내서 좋았다”며 “저의 목표를 떠나서 힘들 때면 고민 상담해 주는 멘토가 있어 기쁘고 저처럼 꿈을 가진 아동들이 이런 기회를 통해 꿈을 펼쳐 나갈 수 있게 됐으면 좋겠다”고 웃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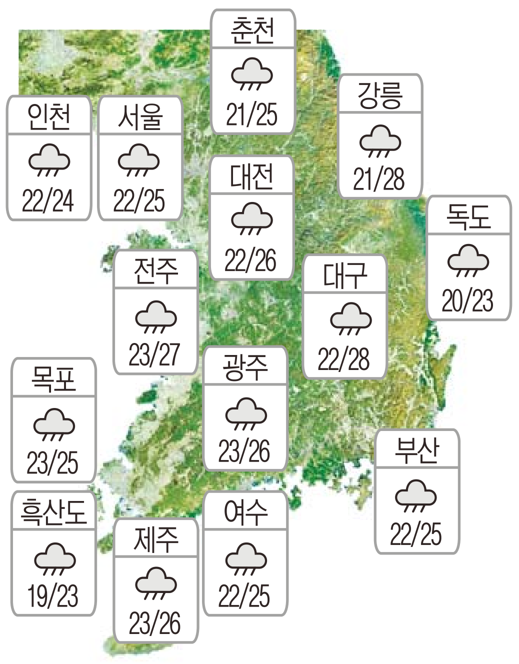
멘토 임정은(33·여) 헬로까눌레 대표는 “앞으로도 이런 프로그램이 진행돼 아동들이 어른들을 의지할 수 있는 사회가 됐으면 한다”며 “단순 봉사가 아니라 멘티인 아동들과 언니·누나처럼 서로 모여 알아가는 기회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오후에는 서로의 초상화를 그리며 누구인지 맞추는 협동 초상화 프로그램과 촛불 모임을 통해 오늘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이 이어졌다.

이해성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과장은 “올해 첫 시작하는 ‘10 프로젝트’를 통해 보호대상아동이 지역 내 CEO에게 심리·경제적 지원과 다양한 노하우를 배우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됐다”며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멘토·멘티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대인관계 확장을 통해 아동들의 자립지지체계를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주성학 기자

24일 곡성군 옥과면 심청한옥마을에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의 멘토링 프로그램 중 하나인 ‘너와 나의 연결고리 10 프로젝트’ 캠프에 참가한 멘토와 멘티가 모여 자신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

오늘의 날씨



광주	비	23/26
목포	비	23/25
여수	비	22/25
나주	비	23/26
완도	비	23/26
구례	비	23/27
강진	비	23/27
해남	비	23/26
장성	비	22/26
보성	비	22/25
순천	비	23/26
영광	비	23/26
진도	비	22/26
흑산도	비	19/23
고흥	비	22/26

●생활정보지수

나들이 10 우산 챙기세요 / 빨래 20 실내건조가 좋아요 / 세차 30 간단히 닦아요 / 운동 40 실내운동 하세요

●바다 날씨

위치		오전/파고(m)	오후/파고(m)
서해남부	앞바다	1.0-2.0	1.0-2.0
	먼바다(북)	1.5-3.5	1.5-3.5
	먼바다(남)	1.5-3.5	1.5-3.5
남해서부	앞바다	1.0-2.0	1.0-2.0
	먼바다(서)	1.5-3.5	1.5-2.5
	먼바다(동)	2.0-3.5	2.0-3.5

●물때

지역	만조	간조
목포	07:11	--:--
	19:34	12:49
여수	01:13	07:24
	13:28	19:31
녹동	02:03	08:32
	14:15	20:25

●전국 날씨

날짜	광주	서울	강릉	대구	제주
6월27일(화)	(23/28)	(21/28)	(23/31)	(23/31)	(23/26)
28일(수)	(22/30)	(22/29)	(24/32)	(23/31)	(23/27)
29일(목)	(24/28)	(23/27)	(24/28)	(24/30)	(23/27)

▶날씨안내 : 국번없이131

‘출생 미등록’ 입소 후에도 여전

출생 미등록 아동이 시설 입소 후에도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출생미등록 아동의 시설 입소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총 269명이 출생미등록 상태로 시설에 입소했고 이 중 40명은 입소 후에도 미등록 상태로 확인됐다. 광주에서는 지난 2021년 2명, 전남에선 2020년 1명이 친모와 연락두절, 혼외자, 방임을 이유로 각각 출생등록 되지 않았다. /오복 기자

전남대병원, 국립대병원 경영평가 3연속 1위

교육부 주관…차입금 6년 연속 ZERO·전공의 충원율 등 높은 점수

전남대학교병원이 3년 연속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하며 ‘교육부 주관 경영평가’에서 국립대학교병원 중 1위를 차지했다.

25일 전남대병원에 따르면 최근 교육부가 국립대병원 14곳 등 기타공공기관 19개 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한 2022년도 경영실적 평가에서 총점 84.95점으로 A등급을 받았다. 이 점수는 14개 국립대병원 중에서 가장 우수한 성적이다.

전남대병원은 지난 2015년부터 시작된 경영평가에서 2015-2016년 2년 연속 A등급을 받은 후 코로나19로 평가하지 않은 2019년을 제외한 2020-2022년까지 3년 연속 A등급을 획득, 전국에서 가장 경영 잘하는 국립대병원임을 또다시 증명했다.

이번 평가 결과 전남대병원은 국립대병원 중 유일하게 차입금을 6년 연속 ‘ZERO’로 유지하면서 경영 안정성 분야에서 호평받았다. 또 산업안전보건공단이 심사한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국립대병원 최초로 인증받은 점과 소아청소년과와 흉부외과 등의 전공의 충원율이 전년 대비 20% 향상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개방형 의료혁신센터 신축, 전주기 연구 지원 시설 인프라 확충 등 연구 인프라 고도화 내용은 우수사례로 평가됐다. /오복 기자

市교육청, 운암중학교에 학교복합시설 구축

주민 이용 탁구장·주차장 등 조성…내달 북구청과 업무협약

광주시교육청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운암중학교에 ‘학교복합시설’ 구축을 본격 추진한다.

학교복합시설은 학교 부지를 이용해 ▲교육·돌봄 ▲문화 ▲체육시설 등을 복합적으로 설치·운영하는 시설로, 학생 교육과 지역 주민 생활에 필요한 사회간접자본을 둘 다 확보할 수 있다.

25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운암중 지하공간을 활용해 주민에게 필요한 공간 조성을 목적으로 탁구장 등 체육시설 및 주거지 주차장을 지하 공간에 1층 규모로 조성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북구청과 그동안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대상 학교와 복합시설 구성안을 선정했다.

오는 7월 중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한 후 북구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관련 절차를 거친다. 이후 교육부에 8월14일까지 공모사업을 신청해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시교육청은 옛 경양초 부지에 내년 5월 준공을 목표로 학교복합시설인 운암 복합문화·체육센터를 지하1층-지상3층 규모로 건립 중이다. /김다이 기자

광주매일신문 전통시장활성화 연중캠페인

“전통시장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일어납니다”

서민들의 삶의 애환이 깃든 '전통시장'이 장기화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겪고 있습니다. 다양하고 편리한 유통시설이 들어서면서 '전통시장'은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갑니다.
하지만 '전통시장'은 여전히 지역경제에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민들에게는 다양한 상품을 싸게 살 수 있는 현장이면서 인정을 나눌 수 있는 공간입니다.
각 자치단체에서는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광주매일신문은 시·도민들의 지혜를 모아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연중 캠페인을 펼치겠습니다.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가 풍성하고 인정이 넘치는

녹차골 보성향토시장

⊙장이 서는 날⊙
2, 7일로 끝나는 날

주최 : 광주매일신문·광주매일TV 후원 : 보성군 문의 : 062)650-2099